

여기도 저기도 '트롯', 지상파도 '트로트 서바이벌'... "왜?"

지난해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작된 트로트 열풍이 올해 지상파로 확산되면서 하반기까지 그 뜨거운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아이돌 위주의 음악 방송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트로트는 방송가의 예능 시장을 파고들며 흥행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포맷과 출연진 중복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시청률 보증수표라고 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9일 첫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트롯신이 떴다' 2-라스트 찬스는 전국 가구 시청률 기준 12.4%를 기록했다.

'트롯신이 떴다'는 남진, 김연자, 설윤도, 주현미, 진성, 장윤정이 다양한 미션으로 무대를 꾸민 '트롯신이 떴다'의 시즌제다.

지난 3월 시작한 '트롯신이 떴다'가 좋은 반응을 얻자 시즌2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즌2에서는 무명 가수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경연으로 바뀌고, '트롯신'들이 조력자로 나섰다.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랜선 관객들과 함께했던 시즌1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랜선 심사위원들의 심사로 합격과 탈락이 결정된다.

트로트 열풍은 지난해 종편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시작해 올해 초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폭발력을 보여줬다.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톱 7에 오른 가

수들은 TV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종편과 지상파의 예능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SBS '트롯신이 떴다' 시작...12.4%로 출발

"식지않는 열기+시청률 효자"...'과열양상'

KBS·MBC도 하반기에 트로트 오디션 가세

또다른 종편 MBN은 지난 7월 트로트 오디션 예능 '보이스트롯'을 내놓았다.

스타 80명 참가에 2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내세웠고, 첫 방송 이후 시청률이 꾸준히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 4일 방송은 자체 최고 시청률인 13.7%로 집계됐다.

SBS플러스는 여러 장르의 가수들이 트로트에 도전하는 '내게 온(ON) 트롯'을 방송 중이다.

KBS와 MBC도 본격적으로 트로트 예능에 뛰어든 준비를 하고 있다.

MBC는 오는 10월 경연 프로그램으로 '트로트의 민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트로트의 민족'은 MBC의 각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의 숨은 트로트 고수를 발굴해내는 지역 유망 트로트 서바이벌이다.

KBS도 11월에 '트롯 전국제전'을 방송할 예정이다.

'트롯 전국제전'은 각 지역에 숨어있는 유망주를 발굴해 새로운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키



는 과정을 그리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고두심, 남진, 김수희 등이 전국 말도 감독으로 출연한다.

이처럼 지상파들도 트로트 예능에 적극 뛰어드는 건 여전히 식지않는 열기와 시청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열풍은 집계됐던 트로트 장르가 살아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방송사마다 비슷한 프로그램 형식과 출연진 중복 등으로 과열 양상은 물론 대중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트로트가 예전에는 기성세대들의 노래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세분화돼 다양해지면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상황"이라며 "트로트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포맷과 출연진 중복에 신선감이 떨어져 대중들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방송사들도 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을 텐데, 돌파구가 있지 않으면 스스로 단행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유빈, 네이버 나우 'SAP' 출연... "대표되니 책임감 생겨"

"SAP" 시즌 2 첫 게스트 너무 영광



그들 '원더걸스' 출신 가수 겸 CEO 유빈이 솔직한 입담을 자랑했다. 유빈은 지난 10일 가수 자이언티가 호스트로 진행하는 네이버 NOW, 'SAP'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자이언티의 'SAP' 시즌 2 첫 게스트로 출격하게 된 유빈은 "너무 영광이다.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지난 5월 21일 발매된 싱글 '넵넵(ME TIME)' 이후 근황을 묻는 질문에 유빈은 "요즘 회사 운영을 하고 있다. 또 회사에 다른 아티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인도 발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자이언티는 "굉장히 공격적인 대표님이 됐다는 소문을 들었다.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고, 유빈은 "아티스트일 때는 '저 섭외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일이 없다. 하지만 대표가 되고 나니 책임져야 할 아티스트가 생겨서 이제는 '소속 아티스트도 섭외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영수증 정리를 안 해봤는데, 정리하면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몰랐던 것들 것 이해하게 되니까 재미있는 것 같다. 한 번쯤 다들 뭔가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빈은 2018년 데뷔 11년 만에 솔로 아티스트로 나서며 발매한 곡 '숙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어떤 곡이 제 색깔에 잘 맞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앨범에 수록곡은 두 곡이지만

6개월을 고민했던 것 같다. 데뷔 후 첫 솔로 앨범이라 고민도 많았고, 맞는 색깔을 찾아 일 년은 공부만 한 것 같다"라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유빈이 선택한 장르는 시티팝. 유빈은 "원더걸스에서도 그렇고 '언프리티 랩스타'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힙합이나 알앤비, 걸크러시한 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며 "어떤 색이 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게 바로 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를 한정 짓지 말고 다 보여주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시티팝 장르에 도전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컬로 선보이게 됐다. 굳이 랩을 넣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혼자 힘으로 만든 앨범 '넵넵(ME TIME)'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나하나 결정해야 하는 게 상상한 것보다 힘들었다. 앨범의 폰트, 글씨 크기, 컷 하나하나를 제가 다 결정해야 했다. 그동안 많은 걸 결정하는 부분을 다른 분들이 감당했구나. 결정하는 게 많이 어려운 거구나"를 느꼈다."

영탁, 15주년 축하 감사인사 "내 사람들 덕분"

'자필 편지'로 감사 표해

가수 영탁이 데뷔 15주년을 축하하는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영탁은 12일 뉴에라 프로젝트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올려 "사실 오래 노래하자는 마음만 컸지, 데뷔 몇 년이 된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내왔는데, 어 느긋 시간이 흘러 처음 세상에 제 목소리를 알리게 된 지 15년이 되었다"고 밝혔다.

영탁의 팬들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영탁 15주년 축하해'라는 키워드를 올려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항상 응원해주신 내 사람들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한결같은 영탁으로 오래오래 노래하고 싶다.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로 보답하는 가수 영탁이 되겠다"며 "늘 웃는 일만 가득 하시길 바란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영탁은 2005년 솔로 가수로 데뷔했고 2011년 듀오 발라드팀으로 활동하다 트로트 가수



로 전향,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2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부천사' 수지... '꿈담은 별' 캠페인에 5000만원 지원

9월에만 벌써 1억 쾌척



가수 겸 배우 수지가 또 한 번의 기부소식을 전했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배우 수지가 지난 3일 저소득 및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꿈담은별' 캠페인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지가 동참한 '꿈담은별' 캠페인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꿈을 향한 배움을 포기한 아이들이 가난과 재능, 성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도전해보고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이다.

수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소득층이 더 큰 위기를 겪으면서 아동·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모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저소득 및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한 명당 최대 200만원의 배움 활동 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수지는 지난 4일에도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사)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에 5000만원을 후원했다.

이틀새 총 1억원을 기부 및 후원한 셈이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수지는 그동안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선보이며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로 활동 중이다.

2015년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터에 791번째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바보의나눔 재단에는 2018년부터 매년 기부를 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혼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금 2000만원, 지난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장과 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엔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을 기부했고, 올해 2월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에 1억원을 전달했다.

지난 8월에도 수재민들을 위해 1억원을 쾌척했다.

한편 바보의나눔 재단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 및 배분사업을 펼치는 법정기부금단체이다.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연기·규모 대폭 축소

"코로나 19 상황 심각하면 영화제 개최 취소도"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 일정은 2주 연기하고, 개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1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어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형식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0월 7~16일 열기로 했던 기존 개최 기간을 2주 연기해 10월 21~30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추석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이며, 더욱 안전한 영화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변경했다고 영화제 측은 설명했다.

또 영화제 개·폐막식과 레드카펫을 비롯해 많은 관객이 모일 수 있는 야외무대 인사, 오픈토크 등의 야외 행사와 소규모 모임은 일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해외 영화 관계자 초청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영화인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열었던 리셉션 및 파티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강력한 방역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들을 모두 취소하고 영화 상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제 선정작 상영은 센터시티 영화의전당에서만 진행되며,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지키며 운영할 방침이다.

또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아시아프로젝트마켓, 비프 포럼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번 연기된 개최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거나, 그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영화제 개최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모두 진지하게 숙고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영화제 측은 올해 영화제 개최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작 발표를 오는 14일 오후 3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